

『노동리뷰』 12월호 - 이슈분석

■ “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: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”

-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.5%에 해당하며, 전년의 73.5%보다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되었음.
- 비정규직이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이면서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2.9%에 그치고 있음.
-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의 임금에 비해 52.2%에 불과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.
- 2005년 8월 현재, 비정규직 근로자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, 그동안 증가추세였던 가입률도 2005년 들어 주춤해 진 것으로 나타남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연구원

Tel : 782-0141(317) E-mail : kangsb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: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

담당자	강승복 연구원
전화	02)782-0141(317)

○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격차 확대

- 통계청의 「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」에 나타난 2005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 9,263원, 비정규직 6,526원으로 나타남.
-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,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5.8%로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지만, 비정규직은 1.3%의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하였음.
-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.5%에 해당하며, 전년의 73.5%보다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되었음.
-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의 주당근로시간은 49.2시간으로서 비정규직의 44.5시간보다 4.7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음.

<표 1>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

(단위:원/시간, 시간/주, %)

		2002년 8월	2003년 8월	2004년 8월	2005년 8월
시간당 임금(원)	전체 임금근로자	6,572 (-)	7,386 (12.4)	7,900 (7.0)	8,260 (4.6)
	정 규 직	6,942 (-)	8,139 (17.2)	8,756 (7.6)	9,263 (5.8)
	비 정 규 직	5,589 (-)	5,824 (4.2)	6,440 (10.6)	6,526 (1.3)
주당 평소 근로시간 (시간)	전체 임금근로자	49.3 (-)	48.5 (-1.6)	47.8 (-1.4)	47.5 (-0.7)
	정 규 직	51.1 (-)	50.2 (-1.4)	49.7 (-1.2)	49.2 (-0.9)
	비 정 규 직	44.9 (-)	45.0 (0.1)	44.7 (-0.6)	44.5 (-0.4)

주:(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.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

○ 비정규직·중소규모 근로자의 임금, 정규직·대규모 근로자의 42.9%

- 사업체 규모별로는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4,046원으로서 가장 높고 이어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, 정규직 중소기업 사업체 근로자, 그리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사업체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남.
- 비정규직이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면서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2.9%에 그치고 있음.

○ 비정규직 여성 임금, 정규직 남성의 52.2%에 불과

- 성별로 살펴보면,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시간당 10,850원으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비정규직 남성, 정규직 여성, 비정규직 여성의 순으로 나타남.
-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가장 높은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 52.2%에 불과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.

○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함.

-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5.7%인 것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36.6%로서 절반에 못 미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.
- 건강보험 가입률 또한 정규직은 75.9%, 비정규직은 37.7%로 나타나 미미한 가입률 수치를 보이고 있음.
-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63.8%, 비정규직 34.5%로서 위의 2가지 사회보험보다는 정규·비정규직간 격차가 작긴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연도별로 보면 2004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각종 사회

보험 가입률이 2005년 들어 감소하였는데,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<표 2>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자 및 비율

(단위: 천명, %)

		2002년 8월	2003년 8월	2004년 8월	2005년 8월
국민연금	전체 임금근로자	7,392 (52.7)	8,163 (57.7)	8,683 (59.5)	9,191 (61.4)
	정 규 직	6,405 (62.9)	6,757 (70.8)	6,659 (72.5)	7,184 (75.7)
	비 정 규 직	987 (25.7)	1,405 (30.5)	2,024 (37.5)	2,008 (36.6)
건강보험	전체 임금근로자	7,785 (55.5)	8,422 (59.5)	8,945 (61.3)	9,264 (61.9)
	정 규 직	6,681 (65.6)	6,919 (72.5)	6,782 (73.8)	7,196 (75.9)
	비 정 규 직	1,105 (28.8)	1,504 (32.6)	2,163 (40.1)	2,068 (37.7)
고용보험	전체 임금근로자	6,730 (48.0)	7,048 (49.8)	7,601 (52.1)	7,943 (53.1)
	정 규 직	5,722 (56.2)	5,701 (59.7)	5,655 (61.5)	6,050 (63.8)
	비 정 규 직	1,007 (26.2)	1,347 (29.2)	1,946 (36.1)	1,893 (34.5)

주: ()안의 수치는 각 고용형태 중 가입비율.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